



인생 최고의 선물



“어때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정산되어 온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데 아내가 슬며시 묻는다.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짓자 아내의 얼굴에도 살짝 그늘이 진다. 그것도 잠시, 힘내라는 듯 내 어깨를 두드려준다.

“괜찮아요. 세금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에게 3월과 4월은 절약의 달이다. 옷이나 신발 구입은 다음으로 미루고, 술자리도 피한다. 외식이나 나들이도 줄이고 마트 비용이나 덩어리 있는 지출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한다. 작년 어린이날에는 쌍둥이들 선물도 건너뛰었다.

작은 쇼핑몰로 시작해 이제 막 점포를 차리고 일거리도 늘리기 시작한터라,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했다. 그렇게 절약을 해도 5월은 마이너스가 되기 일쑤였다. 다행히 이번 5월은 흑자였다.

“오늘 저녁에 쇼핑이나 갈까?”

툭 던진 말에 방을 나서던 아내의 표정이 어리둥절했다. 내 장난기 어린 얼굴을 보고 나서야 속았다는 걸 깨달은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잘 된 거예요?”

“힘들 줄 알았는데 4월 매출이 꽤 되네. 조금 남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보다

넉넉하게 남겠어.”

종합소득세를 낸 뒤 흑자라면 우리 가족은 백화점 쇼핑을 한다. 그날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일 년에 몇 안 되는 날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일 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쇼핑하러 간다는 말을 들은 쌍둥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가지고 싶은 장난감 이름과 먹고 싶은 저녁 메뉴를 경쟁이라도 하듯 하나씩 외쳐댄다. 내가 녀석들을 쫓아다니며 옷을 입히는 동안 아내는 콧노래와 함께 외출 준비를 한다. 오랜만에 시골벽적해진 집안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가 절로 흘러나온다.

퇴직을 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십여 년이 되어간다. 들쭉날쭉한 수입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하고 휴일과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에 때때로 어깨가 처지지만, 단골이 늘어나며 안정화되어 가는 사업과 건강하게 자라는 쌍둥이를 보면서 마음을 추스르곤 한다.

지금 운영하는 점포와 쇼핑몰은 두 번째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던 유통사업에 실패한 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항상 세금과 비용에 신경을 써야 했다. 직장을 다닐 때와 가장 크게 다른 점 중 하나가 그것이었다. 세금과 비용에 관련된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재작년의 일이었다. 부가세 자료를 넘겨주기 위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사무장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다.

“좋은 절세 팁 하나 알려 드릴 테니 언제 저녁이나 먹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 한 끼 정도는 관찮을 거라

생각해 흔쾌히 응낙했다. 며칠 뒤 작은 한정식 집에 자리를 마련했다. 일상적인 대화와 함께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사무장이 말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 친척 중에 사업자 명의 빌려 줄 사람 있으세요?”

그렇게 시작한 사무장의 절세 팁이란, 간이과세자의 세제 혜택을 이용하기 위한 사업자 명의 돌리기와 사업자 명의 분산이었다. 사무장은 여러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방법과 매출을 분산시키는 방법, 오픈마켓 ID 관리 방법, 사업자 통장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었고, 그 방법으로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산해 주었다.

나는 혹할 수밖에 없었다. 사무장이 수고비 명목으로 요구한 금액과 매월 세무사 사무실에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감안해도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블로그나 카페도 만들고 거기서도 판매해 보세요. 그쪽은 그냥 거저먹기입니다. 세금이 제로라는 거죠. 비밀댓글로 운영하면 걸릴 일도 없죠.”

사무장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얼마만큼이나 줄여주었는지, 무용담이라도 되는 양 신나게 이야기했다. 혹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없으면 싼 가격에 알선해 주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사무장과 주고받았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쌍둥이들이 커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중되던 시기였다. 처음 쌍둥이들이 태어날 때만 해도 ‘주어진 조건 내에서만 키우자.’라고 아내와 약속했지만, 막상 닥치니 뜻대로 되지 않았다. 두뇌 발달에 좋다는 최신 장난감들, 유기농이니 오가닉이니 하는 딱지가 붙은 브랜드 의류들, 발육에 좋다거나 EQ와 IQ를 발달시켜준다는 프리미엄 먹거리 등, 조금이라도 좋은 상품에 손이 가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학교에 들어가면 학원도 보내야 하고 사교육도 시켜주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처럼 벌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내는 더럭 겁부터 냈다.

“발각되면 전과자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한대. 걸릴 일도 거의 없는데다, 만에 하나 걸려도 추징금이랑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

불안해하는 아내를 그렇게 안심시키고, 나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다음 날,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리고 한 달 내로 서류들을 준비해 넘겨주기로 했다.

얼마 뒤, 여름옷을 꺼내기 위해 서랍장을 정리하다 쌍둥이가 태어날 당시의 물건들을 모아둔 박스를 발견했다. 박스 안에는 아내의 임신 일기, 임신을 알려 준 배란 테스트기, 쌍둥이의 초음파 사진, 아내의 만삭 사진, 출생증명서와 태줄 등이 날짜별로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간호사들과 지인들의 축하 메시지도 있었고 기념으로 뽑아 본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었다.

당시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내 손은 박스 가장 아래에 놓인 봉투에 이르렀다. 황토색 무지 봉투 안은 대충 구겨 넣은 영수증들로 가득했다. 병원비 영수증들이었다. 영수증들을 넘기며 무심코 금액을 합해보니 천만 원이 훌쩍 넘어갔다. 쌍둥이를 낳기 전까지 수십 차례나 병원을 들락거렸으니 그럴 법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쌍둥이는 어느 부부에게나 각별하겠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조금 더 각별했다. 열 번이 넘는 호르몬 요법과 세 번의 인공수정, 그리고 두 번의 시험관 시술이 있었다. 유산도 한 차례 있었고, 계란 크기의 자궁 근종 제거 수술도 있었다. 생각해보면 참 많이도 울었다. 슬퍼서 울기도 했고, 아파서 울기도 했고, 기뻐서 울기도 했다. 그렇게 결혼 9년 만에

얻은 소중한 생명들이었다.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다. 첫 사업에 실패한데다 갑자기 오른 전세금 마련에 생활비조차 버거워 아이는 꿈도 꾸기 힘들었다. 하지만 40을 코앞에 둔 나이 때문에 임신을 더 이상 늦출 수도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인공 시술을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해 준 것이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이었다. 결국 2년의 긴 도전 끝에 우리 부부는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다.

나는 영수증들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생각에 빠졌다. 영수증들에 찍힌 금액의 대부분을 병원에 지불한 것은 내가 아닌 국가였다. 국가가 지불해 준 그 돈은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 납부한 세금이고, 그 소중한 세금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답은 커녕 탈세를 생각하다니!

생각할수록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영수증들을 봉투에 챙겨 넣으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쌍둥이들을 위해서라도 탈세 따위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곧바로 사업자 명의 돌리기를 위해 모았던 서류들을 찢어버렸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아내가 한 말에 나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탈세를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매월 어린이집 혜택을 받고 있는데, 도둑질까지 한다면 무슨 낮으로 우리 쌍둥이를 볼 수 있겠어요. 잘 생각했어요.”

그동안 나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했었던 모양이었는데, 아내는 한시름 놓았다는 표정이었다.

“미안해.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가고 비싼 선물도 해 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아내가 괜찮다는 듯 손을 잡아 주었다. 아내의 따뜻한 손이 우리는 이미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청림이 세상**